일주문

'불교와 효' 주제로 법문

화성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20일 오후 3시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에서 '불교와 효'를 주제로 법문한다. (031)251-1083

소년가장 · 독거노인 돕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타 스님은 24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소년소녀가장 · 독거노인 돕기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평화기원 백고좌 8일 회향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8일 대웅전에서 '평화기원 백고좌법회' 회향식을 봉행한다. (053)766-3747

동국학원 사무부처장에

고창 선운사 도솔암 주지 성국 스님은 8월 26일자로 학교법인 동국학원 법인 사무부처장에 임명됐다.

평통 천안협회장에 취임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장 법혜 스님은 8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지부장에 취임하고 제11기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중국불자회 조사차 출국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중국 지역 불자회 현황 조사를 위해 6~8일 북경, 천진, 상해, 남경 등을 방문한다.

1차 통일체육축전 개최

좋은벗들 대표 유수 스님은 오는 21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2003 한민족 좋은 이웃의 날' 제1차 통일체육축전을 개최한다.

원순 스님 · 랑승만 · 정부기 씨

1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제12회 행원상 수상자로 원순스님(역경상, 해인사 백련암), 랑승만 씨(문학상, 시인), 정부기 교수(예술상, 중앙대)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역경상 수상자 원순스님(사진 · 상)은 최근 난해한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 소별기>와 현대적 감각에 맞게 한글로 풀이한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을 발간했다.

문학상 수상자 랑승만 시인(사진 · 중)은 뇌졸증으로 20년간 반신불구의 몸으로 투병하면서 시집 <울음>등의 작품 활동을 통해 불교문학포교에 기여한 공로다.

예술상 정부기 교수(사진 · 하)는 80여곡의 찬불가를 작곡하여, 불교음악발전에 공헌한 공로다. 김원우 기자

45개 운영위원사찰 중심 조직 강화

부산 사하불교연합회장 종원 스님

"사하구는 부산시내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포교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45개 운영위원 사찰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지역 포교에 힘쓸 것입니다."

8월 25일 부산 가촌 훼미리타운에서 사하불교연합회 제 10대 회장으로 취임한 종원스님(선운사 부산포교원 미래사 주지 · 사진)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연합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종원스님은 부산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사하불교연합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85년~99년까지 12년 동안 사하불교연합회 회장을 맡아 종단을 초월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하불교연합회의 행정적 기초를 다졌다. "부산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살고 부산불교는 각 구별 연합회가 활성화되어야 발전한다"는 스님은 선운사 기획국장, 교무국장, 부산시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사회복지원장 등을 지낸 행정력을 기반으로 사하불교발전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스님은 벌써 조직 개편은 물론 구청, 경찰서와의 교류 및 연계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 월례회를 통해 승풍 진작 및 포교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성불사에 통일기원 풍경 달 것"

북한사찰 둘러본 도선사 혜자 스님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곡 성불사의 밤(이은상 시조, 홍난파 작곡)으로 유명한 북한 황해북도 정방산 성불사 극락전에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풍경을 달겠습니다"

북한 법운암 남북공동시범단청단 일원으로 8월 4일에서 9일까지 북한사찰을 둘러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지하철 풍경소리 대표 · 사진)은 "성불사에 풍경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한국전쟁당시 소실된 성불사의 풍경을 지원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님은 "최근 풍경장 박석윤 씨(성진공예 대표)씨가 풍경을 보시하겠다고 전해와 성불사 극락전 응진전 청풍루 명부전의 전각에 매달 풍경 20여개를 준비 중"이라며 "하지만 극락전에 매달 풍경은 특별히 주문해 남북화해교류의 주춧돌을 놓은 故 정주영 정몽헌 부자의 이름을 넣어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도선사는 남북교류협력의 물코를 튼 장본인인 故 정주영 전 현대회장이 49재를 지낸 바 있다. 도선사는 현재 故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의 49재를 하고 있다.

극락전 풍경엔 정주영 · 정몽헌 부자 이름 새겨

스님은 "지난번 방북기간중 성불사와 도선사가 도선국사 창건사찰이라는 이유로 자매결연 맺으라는 주위사람들의 권유가 있었다"며 "다시 방북하면 남북사찰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맺고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른 시일내 방북하여 남북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40년 전통에 걸맞는 활동 펼 것"

석림동문회 부산경남지부 회장 지원 스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 있는 동문들의 힘을 결집시켜 수행과 포교에서 석림동문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부산 경남 동문들이 힘을 보탤 것입니다."

8월 22일 부산 온천동 동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창립된 석림동문회 부산 경남지부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지원 스님(16기 · 부산 문수사 주지 · 사진)은 동문들간의 유대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현재 부산 경남 지역에서 75명 정도의 동문들이 포교사, 교수, 군법사, 본사주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유기적 유대를 통해 석림동문회의 40년 전통에 걸맞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림동문회 사무총장을 6년 간 지낸 지원스님은 "종비로 공부한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이라며 "6월에 창립된 대구경북 지부와 전체 동문회, 또 새롭게 결성될 지부와 힘을 모아 지역 포교 활성화, 석림동문회와 모교인 동국대학교 발전 등에 힘써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천미희 기자

동산불교대 하반기 졸업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이 8월 24일 2003학년도 하반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1부 졸업 수계식과 2부 졸업장 수여 및 표창장, 공로상 수여로 진행된 졸업식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과 동산반야회 김재일 이사장, 한국불교동산 김창성 법사단장 등 1여명의 사대부중이 참석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통합회관 개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서울 충정로에 새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공동대표 서영훈)는 8월 27일 서울 충정로에 마련한 한국자원봉사회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웅전 이운 · 약사여래불 점안

양주군 장흥 대원정사는 8월 24일 대웅전 이운식 및 약사여래불 점암식을 봉행했다. 보현행원품 독경, 영가시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대원정사 주지 해련 스님은 "이번 약사여래불 점안식은 신도들과 함께 봉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해사 본 · 말 사 신도 연수회

은해사 본 · 말사 사찰 신도회 연수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영천 은해사 경내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회 입재식에서 법타스님은 "이번 연수회에 성심껏 임해 교구신도회 조직이 더욱 튼튼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법인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사불수행반 개강

'부처님 그리면 부처님 닮습니다'

"사불은 부처님 그리기와 참선이 하나로 된 수행입니다. 불보살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불성을 통해 자신의 불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 강의개요

1. 개강일시	2003년 9월 16일(화) 오전10시30분
2.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3. 교 과 목	· 사불의 개념 · 수행의 역사 · 사불선의 호흡법 · 관법으로서의 사불선 · 순먹사불 · 경명주사 사불
4. 입 학 금	10만원

불교 바라반 모집	
교 과 목	① 천수바라, 나비춤 등 전통바라
지도교수	지도스님(기능교육 이수자)
개 강 일	2003. 9. 5일(금) 오후 3시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2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가을반)
2. 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3년 9월 3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